



특허가 장애물?

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전도사(?)라 자칭하며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강의를 하였으며, 만나는 기업인들에게 특허 없이는 사업의 성공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며 수없이 외쳐왔다.

21세기는 근육이 아닌 머리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을 창출하고 확산하자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침이 삶의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너무 허탈하고 야속하고 속상했던 경험을 얼마 전에 하게 되었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얼마 전 특허 문제로 상의하고 싶다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던 중 광주를 방문했다. 선배가 이끄는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선후배는 허름한 선술집에 마주 앉았다. 몇 순배의 술잔이 돌자 선배는 특허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해 먹겠다며 하소연 아닌 피맺힌 사연을 이야기했다.

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노력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돈 들여 특허를 획득했다. 그것도 예닐곱 개 되는 특허를 보유하면서, 연차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말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사업에 특허에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시방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허기술을 왜 적용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왜 공무원에게 끼치려고 하느냐며 그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특허가 없거나 특허권이 풀려버린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옛날

기술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물론,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려는 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도 우수기술로 인한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없다고 감추어야 한다니, 지난 호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특허가(사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외쳤던 나로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던 순간을 생각하니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탁상공론처럼 외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습치는 사업현장들을 너희들이 알아’ 하고 조소하고 있었을 수 많은 기업가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인양 부끄러워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특허를 준 특허청이 죄인인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식함이 죄일까? 아니면 감사한다고 들이대는 감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팍한 이해력이 문제일까?

지금 거론된 자들을 보면 분명 다 공무원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각색하고 연출한 결과임은 분명하다. 아! 이래서 괴롭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아프다. 분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무원들은 규정에 있는 대로 공무를 잘 집행하고 있다고 변명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과연 그 규정대로 일했다고 해서 공무원은 떳떳할 수 있는 것일까? 답답하다.

이제 우리 국가행정도 내실을 기할 때가 되었다. 시민들이 부족한 인력과 시간을 투여해 잘못된 행정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공무원들끼리의 소통이, 기관들끼리의 통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가슴을 열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기관의 이익 확보에 급급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시민들의 세미한 고충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큰 세상에 우리 정열을 쏟아 분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배와의 술자리를 마쳤던 지난 아픈 생채기를 더 좋은 세상의 변화로 보답하는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중앙정부는 더 많이 지방정부와 만나서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확산, 보호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수의계약이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 안에 내용과 실체를 보고 옳고 그름을 선 판단해서 자라나는 지식재산권 강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지재권 전도사의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기업가들을 가슴으로 안으면서 그들의 고충과 현실의 애로를 같이 고민하며 털어주고 싶다.

후덥지근한 장마철 날씨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던 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 선배를 생각하니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한 줌 장대비가 내려서 이 답답한 마음들을 쓸고 갔으면 좋겠다. 특허가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을 꾸어본다. 2012. 8 |



이 승 종 심판관
특허청 특허심판원